



코스피	2338.88 (-4.19)	코스닥	816.53 (-5.74)
금리 (미국 3년)	2.02 (+0.02)	환율 (원/달러)	1111.80 (+2.50) <1일>

**[해설]**  
부동산시장 담합 실태  
입주민은 '집값 올리기'  
중개소는 '수수료 면제'  
03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공화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행사에서 68년 만에 돌아온 국군 유해 64위에 6·25 참전 기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운·중고차·증권 접고, ADT캡스·암팩·AJ렌터카·동양매직 인수

# 최태원의 딥체인지, SK 날개 '더 빠르고 더 강하게'

(SK그룹 회장)

**SK그룹**  
해운업 설립 36년 만에  
지분 매각 협상 진행 중  
보안업체·렌터카 인수로  
신사업 강화·혁신 고삐



### (SK그룹 주요 행보)

인수	매각
SK바이오텍(바이오), 2016. 2	SK해운(해운업, 36년), 협상중
동양매직(가전렌탈), 2016. 9	SK증권(증권, 26년), 2018. 7
LG실트론(반도체), 2017. 1	SK엔카 직영(중고차 오프라인 사업, 18년), 2017. 11
AJ렌터카(모빌리티), 2018. 9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래 비전인 '딥 체인지(근본적인 혁신)'를 위해 조용한 사업재편으로 혁신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해운, 중고차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사업은 접는 대신, 바이오, 모빌리티 등 뜨는 사업을 키우는 식이다.

36년 만에 해운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SK그룹 관계자는 "한앤컴퍼니 측과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며 "투자유치와 관련,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위 물리(총동)보안업체 ADT캡스 인수를 완료하며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의 바이오, 제약 부문에서도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SK는 최근 미국 바이오-제약 위탁 개발·생산 업체(CDMO)인 암팩(AMPAC)의 지분 100%를 5100억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이는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에서 해외 제약 회사 M&A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방향성을 잡고 사업 재편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와 SK해운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불황의 늪에 빠져 '알던 이'였던 해운업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 해석된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SK그룹은 1982년 유공해운(현 SK해운)을 설립한 지

SK그룹은 지난해 4월 물적 분할을 통해 SK해운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SK해운의 부채비율은 지난 6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391%, 차입금은 4조4000억원이다.

SK그룹은 지난 3월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3년 간 총 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핵심소재와 5세대(5G) 인프라,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이 주요 투자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ADT캡스 인수 역시 이 같은 신사업 투자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SK그룹의 사업 개편은 홈케어와 모빌리티에서도 두드러진다. 최태원 회장이 수장인 SK네트웍스는 모빌리티와 홈 케어로 사업

방향을 잡고 사업 재편을 이어가고 있다. SK는 중고차 오프라인 사업인 SK엔카 직영을 지난해 정리하는 대신, 국내 3위 렌터카 업체인 AJ렌터카를 인수키로 지난달 21일 결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SK네트웍스와 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1위인 롯데렌탈과 비슷해져 업계가 양강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탕으로 개인장기렌터카 사업에 주력해왔다면, AJ렌터카는 30년 이상의 사업 운영을 통한 노하우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클 것으로 보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에는 동양매직(현 SK매직)을 인수하며 홈케어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 들기도 했다. SK매직은 SK그룹 계열사가 된 이후 지난 7월 말 기준, 렌탈 누적 계정 145만을 돌파하는 등 렌탈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 2·4분기엔 1615억원의 매출을 올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도 기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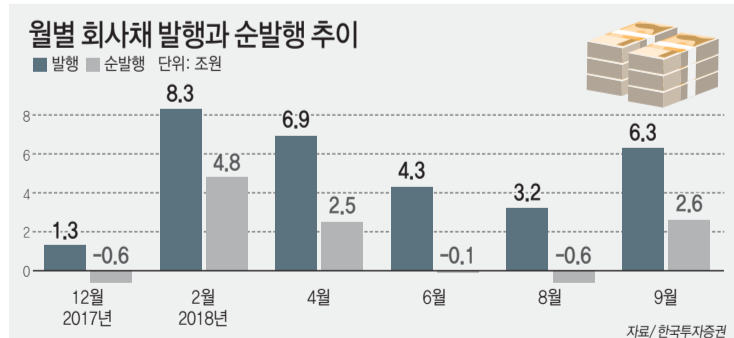
SK 관계자는 "과거에는 매출액이나 이익을 기본으로 연구·개발(R&D) 비용을 측정했다면 현재 SK그룹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비용과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객 관점에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현대산업개발, SKC, 한화토탈 등 회사채 노크

# 금리인상 전 자금조달 나서는 대기업들

지난달 6.3조 회사채 발행  
올 들어 세번째로 규모 커  
SK종합화학 등 발행 계획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삼성SDI는 3년 만에 회사채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삼성SDI는 4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총 1조2500억원의 규모의 투자자금이 몰렸다. 결국 5900억원으로 자금 조달을 늘렸다. 뛰어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번 흥행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모두 삼성SDI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달 500억원 규모의 공모채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총 2260억원의 수요를 확보했으며 4.52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결국 발행금액은 85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개별민평금

리보다 0.75%포인트 낮은 이자율로 공모채 발행을 확정했다. 한화건설은 현재 BBB+(안정적) 신용등급임에도 불구하고 A급 건설사 수준의 흥행을 이뤘다는 평가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대기업이 자금 조달을 서두

르고 있다. 지난 9월에 6조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한데 이어 10월에는 SK종합화학, 메리츠증권증권, 현대산업개발, SKC, AJ네트웍스, 한화토탈, 만도 등이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관의 묻지마 회사채 투자가 한몫했다. 대기업 계열의 회사채는 물론 'B'급 회사채까지 나왔다 하면 안판 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실적이 탄탄하거나 든든한 돈줄(매출처)이 있는 기업은 자금블랙홀로 통한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는 6조3000억원 규모다. 2월 8조3000억원, 4월 6조9000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다. 순 발행액은 2조6000억원이었다.

AA등급 이상 우량기업 중에는 삼성SDI, 미래에셋대우, 롯데케미칼, 포스코대우, SK이노베이션, 한국증권금융, SK텔레콤, SK루브리컨츠등이 수요예측에 나서 모두 오버부킹을 기록, 대부분 금액을 늘려 발행했다.

발행 금리도 모두 개별민평보다 낮게 결정됐다.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이 많았다. LS전선, 한화건설, 롯데건설, 동원엔터프라이즈, E1, GS글로벌, 한진, 한국토지신탁, 세아창원특수강, 포스코건설, 금호석유화학,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풀라리스스위프, 여천NCC, 두산중공업, 하이트진로홀딩스 등이 대체로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한화건설이 개별민평 대비 75bp(1bp=0.01%포인트)나 낮게 결정

되는 등 최근 건설주의 고금리 매력에 부각되는 모습이었다.

한국투자증권김기명 연구원은 "9월 예상을 뛰어 넘는 회사채 발행으로, 상대적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은 회사채 발행이 줄어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요기반 측면에 있어서는 연말을 앞두고 시장에 나올 물량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발행시장을 중심으로 한 만기보유기관의 크레딧채권수요가 공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B금융투자 이혁재 연구원은 "우호적인 수요로 수요예측 흥행 및 강제 발행이 예상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와 낮은 금리수준에 대한 가격 부담이 유통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행 강세와는 별개로 당분간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문호 기자 kmh@